

꾸밈없고 소박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의 향연

글_박중서(번역가)

책은 많지만 내가 읽은 책은 많지 않다. 내가 읽은 책은 많아도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해서 읽은 책은 많지 않다. 그리고 보면 제임스 헤리엇의 책이야말로 우리 집에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응수한 대접을 받는 셈이다. 두어 달에 한 번쯤은, 그리고 일 년에 몇 번씩은 심심찮게 꺼내 읽고 또 읽는 책이기 때문이다. 몇 달 동안 끙끙대던 원고를 간신히 넘겨준 날이라든지, 이런 저런 기분 좋은 일 때문에 한껏 기분을 내고 싶을 때면, 나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맥주를 꺼내 거품이 부글부글 하도록 조끼에 하나 가득 따른 다음, 기분 좋게 쭈욱 들이키면서 책을 읽는다. 바로 제임스 헤리엇의 책을 말이다.

왜 하필 제임스 헤리엇의 책일까. 사실 맥주를 마시면서 읽을 만한 책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맥주를 마시며 《정신현상학》을 읽겠는가,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겠는가? 갈증 날 때 시원한 맥주처럼 피곤한 정신을 차갑게 식혀주고, 또한 서서히 오르는 술기운을 빌어 미친 듯 킁킁거리며 웃을 수 있는 책이라면 제임스 헤리엇의 소설이 제격이다. 한편으로는 영국 요크셔 지방을 묘사한 이 작품에 술, 특히 맥주에 관한 묘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주인공이 무뚝뚝한 농부로부터 뜻밖의 환대를 받아 위스키며 맥주를 질펀하게 퍼마신 다음에, 갑작스러운 왕진 요청을 받고선 한밤중에 인적 없는 시골길을 비틀비틀 운전해 간다는 위험천만한 이야기까지 종종 묘사되고 있으니 말이다(물론 1930년대의 어느 시골 이야기이니 그 정도는 이해해 주도록 하자).

그나저나 헤리엇의 ‘책’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실 이 지면으로도 부족하다. 그의 책은 원서나 우리말 번역본 모두 제법 복잡한 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요크셔의 수의사였던 제임스 헤리엇(본명은 제임스 앨프리드 화이트)은 나이 오십 세인 1966년에 지금껏 자신이 겪은 일을 토대로 한 반(半)자전적인 소설을 두어 권 출간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독자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책을 본 미국 출판사(세인트 마틴스 프레스)에서 처음 두 권을 합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란 제목으로 펴내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제임스 헤리엇은 여러 권의 속편을 펴냈는데, 그중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것들 / 밝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 / 똑똑하고 멋진 모든 것들 / 하느님이 모두 만드셨네”라는 시 구절을 하나씩 따서 제목으로 삼은 4부작을 대표작으로 친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나온 헤리엇의 책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는 《수의사 헤리울》(전2권, 전덕애 옮김, 거고출판부, 1986)이 가장 오래 되었는데, 바로 제임스 헤리엇의 4부작 가운데 맨 첫 작품의 완역본이다. 이 책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출판사다. 거고출판부, 즉 거창고등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책이다. 잘은 모르지만, 혹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고등학교 출판부’가 있는 곳은 아닐까? 기독교 계통 학교이기 때문에 주로 신앙서적을 펴냈지만, 최근에 영화화 된 E. B. 화이트의 소설도 1982년에 여기서 《살롱의 거미줄》이란 제목으로 펴낸 적이 있다.

《수의사 헤리울》은 금세 판이 끊기고, 일일서각에서 1991년에 똑같은 번역을 《배꼽 잡는 허

● 이 글을 쓴 박중서는

에이전트와 출판사 등 출판계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역서로는 《젠들 매드니스》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미국 최고의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이 있다.

수아비)라는 제목으로 다시 펴냈다가, 1993년에는 4부작 가운데 제2부까지 해서 모두 4권으로 이루어진 ‘행복찾기 4단계’를 펴냈다. 그중 1, 2권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었고 3, 4권이 “밝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었다. 요즘 내가 맥주 마시면서 보는 책이 바로 이 네 권이다. 거고출판부의 책은 혹시나 상할세라 이제는 ‘은퇴’ 시켰고, 지금은 이 네 권을 기본안주로 삼고 이후에 나온 다른 번역본들을 가끔 꺼내 읽는 것이다.

물론 4부작 가운데 제1부는 2000년에 《행복한 기적을 키우는 사람들》(안재권 옮김, 현재)이라는 제목으로 정식 계약본이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전체 67장 가운데 35장만을 수록한 ‘반쪽 짜리’ 책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태껏 번역되지 않아서 아쉽기만 하다. 어쩌면 영영 못 나올 것인가? 또한 제2부와 제3부는 웅진에서 《조금씩 행복해지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김석희 번역)되었는데, 그 이후로 나머지 책은 나오지 않고 이런저런 편집본만 출간되었다.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말 번역본에 대해 품은 불만은 원작의 멋진 제목 대신 하나같이 어딘가 두루뭉술한 제목들을 갖다 붙여놓았다는 점이다. 솔직히 “크고 작은 모든 것들 / 밝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 / 똑똑하고 멋진 모든 것들 / 하느님이 모두 만드셨네”라는 시를 직역해 붙이더라도, 그런 어설픈 제목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말이다. 언제쯤 이 4부작을 원래의 멋진 제목 그대로, 그리고 막 쪼개거나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새로 나온 번역본보다도 옛날 번역본(전덕애 선생의)을 선호하는 것은 바로 ‘사투리’ 때문이다. 물론 번역에 있어 사투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문제는 적잖은 고민거리이고, 외국어 사투리를 낯익은 우리말 사투리로 바꿔놓을 경우에는 잔재미 못지않게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만 한다. 그러나 원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요크셔 농부들이 특유의 사투리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2000년 이후의 새로운 번역본들이 하나같이 ‘표준어’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인 동시에 적잖이 아쉬운 일이기도 하다. 사실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간에 능청스러운 사투리를 하나 정해서 구사하기만 하더라도, 이 책을 읽는 재미는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룸필드 씨는 해산한 후에 마실 것을 주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 위장을 차게 하니까”(안재권 번역, 20쪽)보다는 “브룸필드 씨는 새끼를 난 소에게 물을 맥이지 말라고 하던디, 차워서 위장에 해롭다고”(전덕애 번역, 18쪽)가 더욱 정감 있게 들린다는 거다. 물론 옛날 번역이다 보니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망설여지는 대목이 간혹 등장하지만... 그래도 맥주를 마시면서 실컷 웃고 싶을 때에는 ‘헤리엇’ 보다는 ‘헤리울’이 제격이다. 물론 옛날 책 특유의 누렇게 바랜 종이며, 촌스러운 표지, 그리고 종종 등장하는 오타 같은 것들조차도 어딘가 꾸밈없고 소박한 듯한 느낌을 전해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이다. ☞

